

음악

동서양의 전통을 반영

역사적으로 일본의 음악은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기원하며 이에 영향을 받은 고대 전통 민요로부터 유래한다. 또한, 일본의 음악은 오키나와의 복합적인 음악적 전통과 홋카이도 아이누족의 독자적인 전통의 영향도 함께 받았다.

가가쿠

‘가가쿠’(아악)는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은 음악의 한 종류로, 일본 황실에서 천 년 이상 연주되어 왔다. ‘가가쿠’는 3가지 음악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도가쿠’는 중국 당나라(618-907) 음악의 형식을 따른 것이며, ‘고마가쿠’는 한반도에서 전해졌다고 한다. 그리고 신도의 종교 의식과 관련한 토착 음악이 있다. ‘가가쿠’에는 우아한 황실 음악의 형식을 따른 ‘사이바라’라는 소수의 일본 지역 민요도 포함되어 있다.

나라 시대(710-794)에는 다양한 음악 형식이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일본에 전해졌다. 헤이안 시대(794-1185)에는 이러한 음악들이 ‘도가쿠’와 ‘고마가쿠’로 나뉘어져 귀족들과 전문 세습 연주자들에 의해 황실에서 연주되었다. 가마쿠라 시대(1185-1333)에 무인 출신 통치자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황실에서의 ‘가가쿠’ 연주는 쇠퇴하였지만, 음악적 전통은 귀족 가문과 교토, 나라, 오사카에 있던 3단체의 음악인들에 의해 보존되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이들 단체에 속한 음악가들은 새로운 수도인 도쿄로 상경하였다. 오늘날 황실 음악부에서 연주를 하는 음악인들은 대부분 8세기에 형성된 이들 단체의 회원의 직계 자손들이다.



아악

황실 내의 궁내청 연주자들이 아악 관련 연주를 하는 모습이다. (사진제공 : 궁내청)

종교 음악

일본의 가장 중요한 종교 음악은 신도 의식을 행할 때의 음악이다. ‘가구라’(신의 음악)라고 불리는 신도 음악에 대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의 전설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전설에 의하면 여신의 오빠가 그녀를 공격하자 태양의 여신은 하늘의 동굴에 그녀의 빛을 숨겨 버린다. 그러자 다른 여신인 아마노 우즈메노 미코토가 곡을 연주하며 춤으로 아마테라스 여신을 유혹하였다고 한다. 이 전설은 신들이 연주를 듣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일으키도록 하는 관습을 반영하고 있다. ‘미카구라’(황실 ‘가구라’)는 특정한 종교나 신사와 관련된 지방 음악을 포함하는 ‘사토 가구라’(마을 ‘가구라’)와는 다르다. 마을 ‘가구라’는 축제 등에서 들을 수 있는데 연주자들은 가로피리와 다양한 북을 사용하여 반주를 연주한다.

비와, 고토, 샤쿠하치, 샤미센

7세기 초반에 비파(‘비와’), 거문고(‘고토’), 단소(‘샤쿠하치’)가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가가쿠’를 연주하는 악기에 포함되었다. ‘샤미센’은 현이 3개인 현악기로 16세기 오키나와에서 전래한 유사한 악기를 변형한 것이다. 이 4가지 악기에 가로피리(‘시노부에’)와 크고 작은 북이 어우러져 전통의 합주곡을 연주한다.

비와

황실 음악에서 ‘비와’의 단순한 음은 ‘가가쿠’의 선율이 있는 악기들과 조화를 이룬다. ‘비와’가 단독으로 연주된 적은 없지만, 방방곡곡을 편력하는 승려 연주자(‘비와 호시’)들이 이야기를 낭송할 때 반주로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3세기 이래로, 연주 곡목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다이라 무사 가문이 미나모토 가문에 의해 몰락해 가는 긴 역사를 읊은 ‘헤이케 모노가타리’(헤이케 이야기)이다. ‘비와’는 커다란 술대로 타하는 현이 4개인 현악기이다.

고토

초기의 ‘고토’는 줄이 5개(이후는 6개)였으며 길이는 1m 정도였다. 나라 시대(710~794)에 길이가 2m 정도인 13줄의 ‘고토’가 중국에서 들어와 황실 음악 합주에 사용하게 되었다. ‘고토’는 오동나무로 만들며 각각의 현에는 움직일 수 있는 기러기발이 있다. 오른손의 검지와 중지, 엄지 손가락에 끼는 반지에 붙어 있는 쓰메(손톱 모양의 도구)로 연주를 한다. 왼손은 현의 음조를 올리거나 음을 맞추는 데에 사용한다.

샤쿠하치

‘샤쿠하치’는 입을 대는 부분에 홈이 난 대나무 단소이다. 7세기에는 중국의 악기와 같이 6개 구멍이었지만 지금은 앞쪽에 4개, 뒤쪽 엄지 손가락 부분에 1개로 5개 구멍이 나 있다. 17세기 후반 선종 불교의 일파인 후케종파가 ‘샤쿠하치’를 사용한 연주를 종교적인 의식에 채택하였다.



샤미센

‘샤미센’은 에도 시대(1603~1867)의 ‘가부키’와 인형극에 사용되었다. 현이 3개인 오키나와 ‘산신’의 변형으로, 1.1m에서 1.4m까지 다양한 길이가 있다. 반주로 연주할 때의 ‘샤미센’의 기본 음조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 결정한다. ‘샤미센’ 악보는 음조가 아닌 음정 혹은 ‘마’(음정과 음정의 사이)를 나타낸다.

민요

일본의 민요는 4종류로 나뉘어 진다. (1)신도의 ‘사토 가구라’와 불교의 ‘본 오도리’ 곡과 같은 종교적인 노래, (2)모내기나 뱃사공의 노래와 같은 노동요, (3)파티, 결혼식 및 장례식과 같은 관혼상제 때에 부르는 노래, (4)오랜 세월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곡(‘와라베 우타’)과 유명한 시인과 작곡가가 쓴 20세기의 동요이다. 한여름의 오분(한국의 추석에 해당) 동안, 특히 농촌 지역 사람들은 ‘샤미센’, 피리, 북을 연주하면서 민요를 부르며 춤을 춘다. 이는 매년 이승으로 돌아와 며칠을 머무른다고 생각하는 조상의 혼을 환영하는 의식이다.

현대 일본 음악

일본 음악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메이지 정부는 서양 음악을 학교 교육에 도입하였으며 1879년 미국에서 공부한 정부관료 이자와 슈지는 4번째와 7번째 음을 제외한 5음 음계로 작곡 의뢰를 받았다. 그는 서양 음악과 비슷한 음색 구조(‘올드 랭사인’과 같은)를 가진 노래를 교과서에 실었고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이 노래들을 가르쳤다. 5음 음계 음악이 점진적으로 들어온 결과, 상업 음악 장르가 탄생하게 되었다. 폭넓은 인기를 모았던 서양 음악의 또 다른 종류는 군대 행진곡으로, 일본 군사력의 현대화를

샤미센 (일본의 대표적 현악기)
(사진제공 : AFLO)





추진한 메이지 시대에 도입되었다.

1874년, 일본에 처음 정당이 등장하고 국회 의원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당시 자주 대중 연설을 금지당했던 정치 지도자들은 노래로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가수들은 거리에서 노래의 가사가 적힌 가사집을 팔며 다녔다. 이것이 '엔카'의 시작이다. 점차 연주자들은 거리의 정치 선동가에서 악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직업 가수로 발전하였다. 라디오나 축음기가 보급되기 전 '엔카' 가수들은 음악 제작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20세기 중반부터 일본의 인기 음악에서 서양의 영향력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도 서양 악기는 널리 사용되었지만, 서양 악기만으로 연주를 하든, 전통 악기와 함께 연주를 하든 여전히 일본의 5음 음계를 기초로 한 것이었다. 일본 최초의 축음기 레코드는 1903년에 제작되었으며 1920년대에는 여러 인기곡이 녹음되었다. 1930년대에는 재즈가 바와 클럽 등에서 대중 음악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금지되었으나 이후 재즈는 상대적인 수는 적지만 열광적인 팬들과 국내 연주자들, 특히 일부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연주자(와타나베 사다오, 아키요시 도시코 등)에 의해서 명맥을 이어왔다.

전후 일본의 대중 음악은 둘로 구분된다. 하나는 J-POP(아래 참조)이고 다른 하나는 '엔카(演歌)'이다. 메이지 시대의 정치성향을 띤 엔카와는 달리 현대의 엔카 발라드는 대부분이 잃어버린 사랑과 향수를 노래한다. 엔카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멜로디가 연주될 때 나오는 느린 진동음이다. 엔카는 일본의 나이 든 세대에게 변함없는 인기를 누리며 '가라오케' 목록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J-POP

'J-POP'이란 서양의 영향을 받은 일본 대중 음악의 거의 모든 장르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수입한 여러 새로운 서양 대중 음악의 장르를

모방하여, 1950년대 중반 엘비스 프레슬리가 일으킨 로큰롤 붐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로큰롤 밴드가 생겨났다. 1960년대에는 밥 딜런의 영향을 받은 포크송과 비틀스의 영향을 받은 '그룹 사운드' 음악이 모두 발전하였다. 뒤를 이어, 사이키델릭, 컨츄리 락, 헤비 메탈, 펑크, 레게, 랩, 힙합과 같은 팝 음악 장르가 그들만의 팬과 일본인 연주자 그룹을 양산하였다. 1970년대 이래로, J-POP의 상업성은 두 가지 대조적인 노선, 즉 팝 아이돌과 '새로운 음악'으로 불리는 싱어송 라이터 장르로 발전하였다.

양분된 음악 시장의 한 쪽을 차지하는 싱어송 라이터는 자신의 노래를 연주하고 대부분은 그들 자신이 음악적 방향을 결정하는 가수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주로 투어 공연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텔레비전에는 좀처럼 출연하지 않는다. 야자와 에이키치, 차게 앤드 아스카, 사잔 울스타즈, 유민, B'z 등은 수십 년 동안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의 예로는 록/힙합 그룹인 오렌지 레인지가 있는데, 그들은 오키나와 출신의 유명한 팝, 록 그룹 중의 하나이다. 재능 있는 젊은 R&B 여가수 우타다 히카루도 싱어송 라이터에 속한다.

또, 아이돌 가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탤런트 에이전시에 선발되어 훈련을 받고 이곳에서 마케팅을 책임진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아이돌 가수들은 비교적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양성된 (광고와 TV CF 및 TV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어린 소녀들이며, 시간이 지나면 이들의 인기는 급속도로 떨어진다. 예외적으로 오랫동안 인기를 누려온 스타로는 마쓰다 세이코가 있다. 그녀는 오랜 기간 인기를 유지해 온 일본 가수 중의 한 명이다. 1990년대에는 스피드와 모닝 무스메와 같은 소녀 그룹이 인기를 누렸다. 귀여운 보이 밴드 (스머프, 긴키 키즈, 카툰, 아라시 등) 또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데, 대부분은 탤런트 에이전시인 자니즈 사무소라는 기획사에서 것이다. 그 밖에도, 2019년 현재 J-POP계를 이끌어가는 남성 19인조 보컬&댄스 유닛인 에그자멜이 있다. 젊은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또한, 테크노 팝이라는 장르로



인기를 모으는 여성 3인조 그룹 퍼퓸이 개성적인 댄스와 목소리로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인기 아이돌 그룹 AKB48 외에 NMB48, 노기자카46 등 많은 연계 그룹이 있다. 100명 이상의 소녀로 구성된 AKB48은 팬이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를 투표할 수 있는 연례 멤버선발 과정을 거친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가 가장 많이 득표해서 그룹의 중심 위치(노래와 그룹 주도)를 차지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언제나 이 이벤트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1990년대 많은 히트곡을 양산한 인기가수 아무로 나미에는 2018년 9월 은퇴를 발표했다. 그녀의 스타일을 따르는 젊은 여성들을 두고 '아무라'라고 했는데 이 말은 유행어가 되었고 사회 현상이 되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하쓰네 미쿠'로 대표되는 가상 아이돌이 등장했다. 멜로디와 가사를 입력해 샘플링 된 사람의 목소리와 합성함으로써 가상 보컬 로이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음악 제작이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에게까지 인기를 얻고 있다.

일본의 클래식 음악

20세기 초반까지는 일본에도 클래식 음악을 듣는 안목이 높은 사람들이 적잖이 생겨났고, 이는 유럽 연주자들의 관심을 끌어 그들 중 일부는 일본으로 와서 연주회를 열거나 콘서트 투어를 하기도 하였다. 1926년에는 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결성되었고 1927년부터 정기 공연을 시작하였다. 1951년 뉴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 이 오케스트라는 NHK 방송 협회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되었다. 1950년 이래로, 일본현대음악협회는 작곡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행사를 열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작곡가로는 일본 민속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오페라 '유즈루'(저녁 두루미, 1952)를 작곡한 단 이쿠마와, 난해한 불교의 영감을 받아 교향악 소품을 작곡한 마유즈즈 도시로를 들 수 있다. 전위 예술 음악 작곡가인 다케미쓰 도루는 영화 음악도 작곡하여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다. 현재, 많은 일본 음악가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휘자 오자와 세이지, 바이올리니스트 고토 미도리, 피아니스트 우치다 미쓰코와 같은 음악가들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보컬 및 댄스 그룹 EXILE

이 그룹의 콘서트에서 파워풀한 댄스 공연은 인기의 또 다른 요인이다.